

10 JAN 2008

## 시각장애인 골퍼와 호흡맞춰 내일의 희망·도전 향해 '티샷'

KBGA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 1대 1 레슨 도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재미로 골프를 쳐?"

시각장애인들이 골프를 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10여개국 수천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골프 배우기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 8명의 시각장애인이 골프 배우기에 도전하면서 국내 시각장애인 골프 역사가 시작됐다. 한국시각장애인골프협회(KBGA)가 그 대표적인 모임. 지난 8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은 KBGA는 이제 30여명의 시각장애인 회원과 20여명의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로 성장했다.

시각장애인 골프는 팀플레이다. 볼을 치는 시각장애인 골퍼와 안내하는 코치가 호흡이 잘 맞아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수한 스포츠인 것이다. KBGA 시각장애인들은 함께 연습하고 자원봉사자 코치들로부터 무료 레슨을 받는다. KBGA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제1회 대신증권배 시각장애인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크리스천이다. '예닮골(예수를 닮기 원하는 크리스천 골프 모임)' 회원들이다. 이들은 매달 정기모임 등을 통해 골프를 즐기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나누는 것 외에도 시각장



한국시각장애인골프협회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8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 역삼동의 한 골프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애인들에게 희망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정성스레 코치하는 선길이들이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덕상(57·벤팔드코리아보험 고문·온누리교회)씨는 "시각장애인들이 모든 스포츠에 도전하고 있지만 골프만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제 골프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희망과 도전을 주고, 비장애인들에게는 봉사의 기쁨을 전해주는 스포츠가 됐다"고 말했다([www.kbga.kr](http://www.kbga.kr)·02-793-2624).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